광남일보

조간 제8152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음력 7월 9일)

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벼랑 끝 몰린 국립의대

의대·병원 입지 합의 실패…대학 명기 없이 계획서 제출
교육부 요구 조건 못 갖춘 '반쪽 계획서'…탈락 가능성도
정부 직접 선정·지자체 위임 등 대안 거론…후폭풍 불가피

옛 전남지역 주민들의 30여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 협상을 벌여온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정부의 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20일까지 의대와 대학병원 배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정부로부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확보하고도 내부 갈등을 넘지 못해 정식 신청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관련기사 19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이날 오후 교육부에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옛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과 입학정원 100명,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계획 등이 담겼다. 그러나 유치 대학은 특정하지 못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확보방안, 교원 충원계획 등 두 대학의 합의가 필요한 핵심 내용도 빠졌다.

교육부가 요구한 계획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통합특별시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먼저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포함한 통합 방안을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통합대학 설립은 옛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의 사실상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제출 시한까지 의대와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는 목포대에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두고 순천대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순천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두 대학이 자체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통합특별시도 마감 직전까지 두 대학에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으나 이견을 좁힐 만한 추가 중재안을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통합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국립의대 신설은 공동 신청 주체도, 의대와 대학병원 입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정부 심사를 받게 됐다.

이날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는 완결된 의대 유치계획서라기보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지자체 의견서에 가깝다. 교육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신설 필요성과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계획 등 일부만 담겨 사실상 '반쪽 계획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추진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면 신설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전시관, 편의시설, 야외무대 등 시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 군공항이전 후보지 무안 28일 결정

국방부, 특별시·무안군 참여 2차 선정위 개최
내달 초서 앞당겨져…연말 이전부지 확정 목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무안군은 최근 을지훈련 등 일정을 고려해 9월 2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광주특별시와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부지의 속도감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일정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 후보지로 의결되면,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후보지 지정 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국방부, 재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정부와 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군공항 이전의 3대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군공항 이전 심의위원회에 2차례 불참하면서 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무안군이 요구해 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절차가 국토교통부 검토 단계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무안군 간 협의가 진전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통합특별시는 무안군의 100만평 국가산단 지정 요구에 대해 미분양시 50만평을 통합특별시가 보증해 주기로 하고, 국가산단 선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심의는 선정위원회에 앞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부지로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도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소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무안군이 유치 신청을 하고 이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SK하이닉스, 인재 찾는다…광주서 채용 설명회

24일 김대중센터서…학력 제한 폐지 맞춰 '열린 채용'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SK하이닉스가 광주에서 채용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찾기 위해 오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고, 실제 면접에서는 스펙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채용 체계를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를 시작으로 대구 엑스코, 청주 오스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하반기 기술사무직 신입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구직자 등 총 4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발표한 지원 자격상 학력 제한 전면 폐지에 맞춰 특정 대학 캠퍼스가 아닌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설명회에서 인재상과 채용 방식도 소개한다. 단순 지식이나 정형화된 업무를 AI가 빠르게 대체하는 환경에서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향후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채용 전형을 개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전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춘 '반나절 심층면접' 도입이다. 기존 면접이 20분 정도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지원자가 반나절 동안 과제를 수행하고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자들은 면접장에 마련된 PC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직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 해결 발표(PT)를 비롯해 심층 인터뷰, 그룹 토론, 영상 인터뷰 등을 거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서류 전형도 역량 중심으로 변경했다. 기존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지원자가 보유한 'AI 활용 역량'과 '반도체 직무 전문성'을 기술하는 신규 서식을 도입했다.

한편 하반기 신입 채용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심층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할 예정이다. 직무는 설계와 소자, 연구개발 공정, 양산기술 등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